

상림리 출토 동검의 비밀

노지현 | 104호 부여 · 삼한실 | 19:00~19:30

1975년 우연히 발견된 완주 상림리 출토 동주식동검은 묘목을 뽑던 마을 주민에 의해 우연히 발견되었다. 발견 당시부터 동검 이외에는 다른 유물이나 유구가 확인되지 않았고 가지런히 놓인 상태에서 출토 되었다는 점에서 의도적으로 매납한 유물로 인식되어 왔다. 상림리에서 출토된 동검 중 일부는 연마 흔적이 없고 주조흔이 그대로 남아 있으며 검신의 두께가 얇은 것도 있어 비실용적인 목적으로 제작된 것으로 추정된다.

상림리에서 출토된 동주식동검 26점에 대하여 성분 분석 및 납동위원소비 분석을 실시하여 동검의 재질과 제작 원료의 산지를 살펴보았다. 성분 분석 결과, 동주식동검은 Cu-Sn-Pb의 3원계 합금으로 Sn과 Pb의 조성 비율에 따라 한반도 출토 동검의 성분 조성과 유사한 A그룹과 Sn의 함유량이 적고 Pb가 많은 B그룹으로 구분해 볼 수 있었다. B그룹에 속한 동주식동검은 강도와 경도가 떨어져 실제 사용하기보다는 비실용적인 목적으로 제작되었을 가능성이 있으며 이러한 결과는 상림리 출토 동주식동검이 비실용적인 목적으로 제작되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기존의 주장을 뒷받침해준다.

납동위원소비 분석으로 동검 제작에 사용된 원료의 산지를 살펴본 결과, 상림리 출토 동주식동검은 한반도의 원료를 사용하여 제작되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반면, 중국에서 제작한 동주식동검은 중국의 원료를 사용하여 제작된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상림리 출토 동주식동검이 중국의 동검을 모방한 방제품일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을 의미한다. 이처럼 문화재에 대한 과학적 연구 결과는 고대 유물의 성격과 특징을 파악하는데 중요한 정보를 제공해준다.



그림 1. 완주 상림리 출토 동주식동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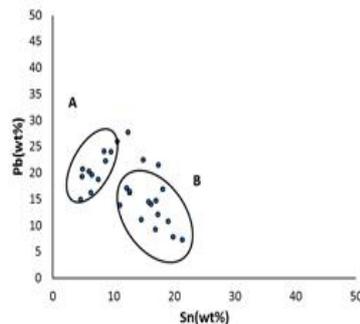


그림 2. 동주식동검의 Sn-Pb 함유량 상태도

고조선의 철기문화

김상민 | 103호 고조선실 | 19:00~19:30

우리나라 최초의 국가인 고조선古朝鮮은 청동기문화를 바탕으로 건국되었다. 고조선의 세력범위는 요령식遼寧式동검과 미송리식美松里토기, 탁자식 고인돌[支石墓]이라는 물질문화의 분포양상을 통해 중국 요령遼寧지역에서부터 한반도 서북지역으로 추정되고 있다. 고조선의 중심지는 요령지역을 중심으로 하였던 요령식동검문화에서 한반도 청천강淸川江 이남지역을 중심으로 한 한국식 동검문화로 그 중심지가 이동하였다고 본다. 한국식동검문화의 발전 시기는 기원전 4세기말에서 3세기 초에 해당한다.

청동기문화에 기반을 둔 고조선으로 철기문화가 유입되는 시기는 한국식동검문화가 번성하던 기원전 3세기대이다. 고조선의 초기철기는 연나라[燕國] 장수 진개秦開의 침입과 관련된 문헌기록, 압록강鴨綠江 하류지역 위원 용연동유적에서 보이는 철기의 특징을 통해 연나라의 물질문화라는 점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연구 자료의 한계로 인해 고조선 철기문화의 특징은 무엇이며, 어떻게 발전되었는가에 대해 구체적으로 연구하지 못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조선의 이남지역에 위치한 삼한三韓의 철기에서 고조선 철기문화의 특징을 유추하려는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다. 삼한지역 역시 고조선과 마찬가지로 기원전 3세기대 연나라 철기가 유입되며, 기원전 2세기대가 되면 독자적인 형태를 띠는 주조鑄造 철기가 확인되고 있어 주목받고 있다.

완주 갈동, 장수 남양리유적 등에 부장된 철기는 연나라 철기와 다른 특징을 보인다. 이 철기들은 한국식동검과 함께 출토되어 한국식동검문화와 같은 계통으로 보기도 하며, 남하南下한 고조선의 문화로 해석되기도 한다. 그리고 준왕準王의



그림 1. 위원 용연동유적 (고조선의 초기 철기)

남하라는 문헌기록을 근거로 기원전 2세기 대 이전 고조선 내 독자적인 철기문화 있었을 것으로 추정되며, 그 일부가 삼한지역 중 마한馬韓에서 나타나는 것으로 보고 있다. 결국 고조선은 연나라 철기문화가 들어오면서 철기를 알게 되었고, 이후 기존의 한국식동검문화를 바탕으로 연나라 철기를 모방하며 철기를 만들기 시작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평양 상리유적의 부장품에서도 고조선 철기문화의 특징을 엿볼 수 있다. 상리유적에서는 발전된 한국식동검문화와 함께 철검, 쇠도끼[鐵斧] 등 한나라의 영향을 받은 단조鍛造 철기문화가 확인된다. 철기만이 연나라 계통에서 한나라의 계통으로 바뀌었을 뿐 다른 물질문화는 지속적으로 독자성을 유지하고 있다. 상리유적 부장품은 위만衛滿조선의 물질문화로 이해되고 있으며, 한漢나라의 앞서가는 단조 철기문화를 받아들이면서 기존의 한국식 청동기문화를 유지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더불어 북한강北漢江유역의 가평 달전리유적 부장품도 고조선 철기문화의 일부로 인식되고 있다. 한국식동검과 쇠가지창[鐵戟], 철검이 출토되었는데, 특히 철검은 낙랑군 설치(기원전 108년)이후 삼한지역에서 확인되는 고조선을 대표하는 철기로 볼 수 있다. 이 철검은 한국식동검의 자루와 날부분을 조합하는 구성을 그대로 따르고 있으며, 자루장식은 북방계 특징을 띠고 있다. 날만 청동에서 철로 바뀐 것으로 한나라의 철검과는 다른 형태이다. 이를 고조선의 독창적인 철검으로 본다면, 한나라의 단조 철기문화가 위만조선으로 들어와서 어떻게 변용變容되어갔는가를 추정할 수 있다.

이처럼 몇몇 유적의 사례를 통해 고조선 철기문화를 유추하고 있지만 아직까지도 그 구체적인 실체는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고조선의 철기문화는 중국의 앞선 철기문화를 받아들여 자신만의 기술로서 만들어보려는 노력의 산물로써 성립되는 것은 아닐까 생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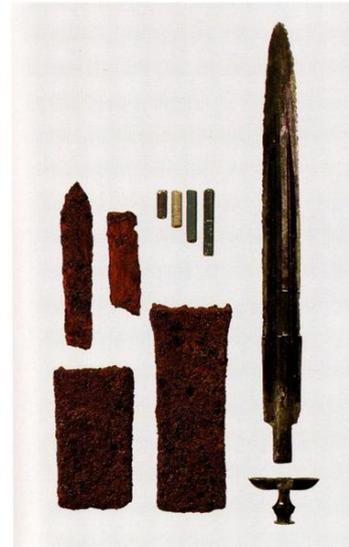


그림 2. 장수 남양리유적 (마한 지역의 초기 철기)



그림 3. 평양 상리유적 (위만조선의 초기 철기)

서방 극락정토의 아미타여래

양수미 | 301호 불교조각실 | 19:00~19:30

그때 부처님이 사리불에게 말씀하셨다.

“여기에서 서쪽으로 십만억 불국토를 지나간 곳에 ‘극락’ 이라고 하는 세계가 있다. 거기에 무량수無量壽라는 부처가 계시어 지금도 법을 설하신다. 사리불이여, 저 세계를 어찌서 극락이라 하는 줄 아는가? 거기에 있는 중생들은 아무 괴로움 없이 즐거운 일만 있으므로 극락이라 하는 것이다.”

그저 그 이름을 부르는 것만으로도 구원과 위안이 되고, 어떠한 괴로움도 없으며 영원한 즐거움만이 있는 세계에 머물며 중생을 이끄는 아미타불은 오랫동안 불교도들의 기원과 신앙의 대상이었다. ‘아미타불’ 이라는 말은 범어梵語 아미타바 Amitabha를 음역한 것으로 초기에는 무한한 광명과 수명을 뜻하는 무량광불無量光佛, 무량수불無量壽佛로 의역되기도 하였다. 이 시기에는 돌아가신 부모와 함께 ‘미륵불’ 이 있는 곳에 태어나기를 바라면서 ‘무량수상’ 을 만들거나 미륵상을 조성하면서 ‘서방정토’ 에 나기를 기원하는 등 혼재된 신앙 양상을 보인다(그림 1). 402년 여산 혜원慧遠과 함께 아미타불상 앞에서의 맹세에 참가했던 지식인들로부터 일반 재가신자들, 도살업자와 같은 천민, 수나라의 황후에 이르기까지 아미타신앙은 사회 각층에 강한 호소력을 발휘했다. 7세기 이후, 당대에 들어서면서 더욱 성행한 아미타신앙은 우리나라에서도 극락왕생 신앙과 결부되어 널리 유행하였다. 아미타불상은 독립된 조각상뿐만 아니라(그림2) ‘아미타불이 있는 정토를 묘사한’ 서사적인 맥락을 가진 그림이나 상으로도 조성되었다(그림3).



그림 1. 신묘명금동삼존불
고구려 571년, 국보85호, 삼성미술관



그림 2. 금제아미타불좌상
통일신라 706년, 국보79호



그림 3. 기축명아미타불비상
통일신라 689년, 보물367호

테마전시 ‘벼락도끼와 돌도끼’ (2)

김동완 | 테마전시실 | 19:00~19:30

왕의 진상품, 벼락도끼

뇌신雷神은 하늘에서 비와 바람, 천둥과 번개를 다스리는 신으로 도끼[雷斧]를 지니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기 시작한 것은 8세기경 중국의 당唐대이다. 『조선왕조실록』의 벼락도끼 관련 기록은 세종 23년(1441)을 시작으로 광해군 14년(1622)에 이르기까지 약 180년 동안 7번 보인다.

조선시대 사람들은 신의 물건인 벼락도끼에 신묘한 약효가 있다고 생각하여 임금에게 진상품으로 올렸다. 또한 벼락도끼를 만병통치약으로 여겨 임산부에게 갈아 먹이기도 하고, 나쁜 기운을 물리친다고 믿어 아이에게 채워 주기도 하였다.

하지만 16세기 초부터 성리학적 사회질서가 자리를 잡으면서 벼락도끼를 자연적인 기氣가 뭉쳐서 만들어진 물건이라고 설명하기 시작하였다. 17세기 이후에는 실록에서 벼락도끼에 대한 기록이 점차 사라지게 된다.

『세종실록』 권92 세종 23년(1441) 5월 18일

벽력침(霹靂鍼, 雷斧)은 독이 없고 크게 놀라거나 실성하여 사람을 알아보지 못하는 증세에 갈거나 달여서 복용한다. …… 어린이에게 채워 주면 놀란 기운과 나쁜 기운을 모두 물리치고, 잉태한 부인이 갈아 복용하면 아이를 빨리 낳게 하는 약으로 효험이 있다.



그림 1. 『조선왕조실록』에서 보이는 벼락도끼의 효능

특별전 <보존과학, 우리 문화재를 지키다>(9)

- 국보 제141호 다뉴세문경의 보존처리와 제작기술 -

박학수 | 특별전시실 | 19:00~19:30

숭실대학교 한국기독교박물관이 소장하고 있는 국보 제141호 다뉴세문경은 뒷면에 매우 정교한 기하학적 문양이 새겨 있어서 한국 청동기 기술의 우수성을 보여주는 문화재로 평가 받고 있다.

2007년 파편을 붙였던 부분이 떨어지게 되어 국립중앙박물관에서 2007년부터 2008년에 걸쳐 보존처리를 하였다. 보존처리에 착수하기 전에 X선 조사, 현미경 관찰과 성분 분석 등을 통해 다뉴세문경의 특성과 상태를 파악해서 보존처리 방향을 결정했다. 보존처리는 표면에 존재하는 흙 등의 이물질 제거하는 것부터 시작했다. 기존에 사용한 접착제는 오래되어 색이 변하고 약해졌기 때문에 제거해서 모두 19개의 편으로 분리하였다. 분리된 편들을 방청액에 담가서 녹이 생기는 것을 방지하였고, 그 후 합성수지를 침투시켜 약한 부분을 강화시키고 표면을 코팅하였다. 편들을 접착제로 접합을 하였으며, 뉴 주위와 주연(테두리)의 없어진 부분은 합성수지로 메운 후, 주변의 문양과 연결되도록 문양을 새겨서 복원하였다. 그리고 복원 부위는 주변과 어울리면서도 구별할 수 있도록 색을 칠했다.

보존처리하는 과정에서 거꾸집의 파편과 주조 결함을 발견하여, 흙을 굳혀서 문양을 새긴 거꾸집을 사용해서 다뉴세문경을 주조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문양의 배치와 모양을 관찰한 결과 내구, 중구, 외구를 나누는 구획원은 컴퍼스로 하나 씩 그렸고, 외구에 있는 4쌍의 동심원은 21개의 바늘이 붙어 있는 도구로 한꺼번에 그렸다는 것을 보여주는 근거가 있었다. 한편 두 개의 뉴에는 바깥쪽에

만 마모에서 닳은 흔적이 남아 있기 때문에 하나의 끈으로 두 개의 뉴를 관통시켜서 매달아 사용했었던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림 1. 다뉴세문경의
배면(문양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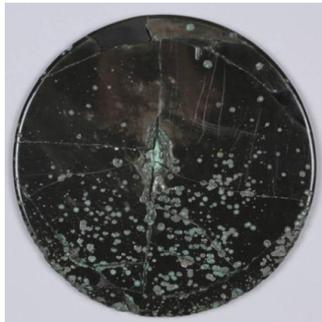


그림 2. 거울면